

제1절 고성1리(古城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7번 국도 너머에 울진읍 읍내리와 연결하고, 서쪽은 청고동(靑臯洞)이 있으며, 강 건너에 가원동(佳原洞)이 있다. 남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월변동(月邊洞)이 있고, 북쪽은 조선시대에 읍성(邑城)이었던 산성(山城)이 있으며, 성저동(城底洞)과 접하며, 새마실(新村)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고파미(古婆尾)

임란(壬亂) 때 길을 묻는 왜병(倭兵)에게 ‘저 멀리 구만리(九萬里)를 가야만 성(城)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노파(老婆)가 살던 곳이라고 전한다.

2) 구만동(九萬洞)

1431년경에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개척(開拓)하였다고 하며, 구만(九萬)이라는 동명(洞名)은 1593년[임진란]에 왜병(倭兵)이 고산성(古山城)을 공략(攻略)하고자 성(城)의 위치와 거리를 노파(老婆)에게 물었더니, 노파가 답하기를 ‘저 멀리 구만리(九萬里)를 가야만 성(城)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구만동으로 붙여졌다고 전한다.

3) 도름묵

구만동(九萬洞)에서 새마실(新村)로 통하는 길목이며 3가구(家口)가 살았으나 지금은 농경지(農耕地)가 택지(宅地)로 변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4) 새마실(新村)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청고동(靑臯洞)

1431년(세종 13)에 울진 장씨(蔚珍張氏)인 선비가 이 마을을 처음 개척(開拓)했다고 전하며, 푸른 초원(草原)의 언덕에 자리 잡았다 하여 청고(靑臯)라 하였다. 그 후 1593년 임란 이후부터는 천고개로 부른다.

3. 가구 분포

총 82세대가 거주하며 신안 주씨(新安朱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마을의 주 성(姓)이다.

4. 마을의 특징

1) 독송정(獨松亭)

독송정은 조선 중기 학자이자 ‘천감지효(天感之孝)’의 효자로 이름난 주세창(朱世昌) [1508~1580]이 울진읍 고성리 청고동에 지은 정자이다. 1671년 울진 현령 정필달(鄭弼達)이 중건했으며, 옛 독송정 자리에 후손들이 유허비를 건립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관동안무사(關東按撫使)로 울진현을 순찰하던 중 독송정(獨松亭)에 올라 지은 시가 전한다. 주세창은 신안 주씨 울진 입향조이자 청백리로 이름난 주선림(朱善林)의 손자로 조정에서 효행의 상으로 삼배 300필과 경언교수 직을 제수했다. 농암(叢巖) 이현보(李賢輔)와 월천(月川) 조목(趙穆) 선생과 교류했다.

2) 불천사(不遷祠)

고성리 구만동에 있는 조선시대 사우(祠宇)이다. 1644년(인조 22)에 건립하여 효자 주경안(朱景顔)을 봉안하다가, 울진후(蔚珍侯) 박한(朴垺)의 주선으로 배공인(配恭人) 울진 장씨(蔚珍張氏)를 합사(合祠)하였다. 1947년에 중건하였으며, 향사일은 음력 2월 27일이다. 불천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3통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면에는 원기둥을 설치하였고, 개방된 퇴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성황당(城隍堂)

구만동(九萬洞)과 청고동(靑臯洞)에 있던 노송(老松)을 신목(神木)으로 모셔왔으나, 1959년에 사라호 태풍으로 모두 유실(流失)되었다. 이후에 구만동(九萬洞) 주민들은 마을 입구 우측 산(山)에 사당(祠堂)을 건립(建立)하였고, 청고동(靑古洞)은 옛 노송 자리에 느티나무를 새로이 심어 엄선된 제관(祭官)이 음력 정월 15일 자정에 주민의 강녕(康寧)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4) 장동유효자각(張東維孝子閣)

효자 장동유를 기리는 효자각으로 1869년(고종 6)에 정려(旌閭)를 세우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 정려를 명한 예조입안(禮曹立案)이 현존하고 있다. 정려각의 형식은 장서린·주경안의

효자각과 같은 형식이며, 정려판에는 ‘효자학생장동유지려(孝子學生張東維之閭)’라고 적혀 있다.

5) 장서린 효자각(張瑞麟孝子閣)

1633년(인조 11)에 세워진 정려(旌閭)이다. 효자비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73번지 청고동 앞 논 가운데에 있다. 비각은 자연석 기단과 초석 위에 단칸 규모로 지은 맞배 기와집이다. 전면은 홍살이며, 3면은 판재로 막음하였다. 비는 얇은 판석형이며, 현재 비면의 기록은 알 수 없다. 현판에는 “효자장임낭장서린지려(孝子將壬郎張瑞麟之閭) 인조십일년계유명정(仁祖十一年癸酉命旌) 금상이년경술십일월십일이건(今上二年庚戌十一月十日移建)”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6) 주경안효자각(朱景顔孝子閣)

1596년(선조 29) 강원감사 정구가 효행을 추천하여 세워진 정려(旌閭)각이다. 주경안은 1612년 울진군에 세운 향현사(鄉賢祠)에 남사고(南師古)와 함께 배향되었다. 1748년(영조 24)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증직되었다. 그 후 불천사(不遷祠)에 배향되었으며, 충효당(忠孝堂)을 세우고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당기(堂記)를 지었다. 『삼강록(三綱錄)』에 효행이 기록되었으며, 시호는 충효당(忠孝堂)이다.

7) 축천대(祝天臺)

울진읍 고성리 구만동 동쪽 산 정상부에 있는 주경안과 관련한 석단(石壇) 터이다. 근처에는 주경안 유허비가 있다. 충효당(忠孝堂) 주경안(朱景顔)이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산봉우리에 돌로 단(壇)을 만들고 7년 동안 매일 새벽닭이 울 때 그 위에서 아군이 승리하기를 하늘에 기원하였던 데서 축천대(祝天臺)라 하였다.

8) 충효당(忠孝堂)

충효당은 충과 효에 뛰어났던 주경안(朱景顔)의 시호를 딴 강당이다. 1644년(인조 22)에 주경안을 봉안한 불천사(不遷祠)와 함께 건립됐다. 1907년에 화재로 소실됐으며, 1927년에 중건하였고, 1996년 불천사를 비롯해 충효당 강당, 정려 효자각, 축천대를 다시 중건했다. 효자 주경안은 임란 당시 단(壇)을 쌓고 7년 동안 왜적 퇴치와 백성의 안녕 기도하고, 효성이 지극해 ‘하늘이 내린 효자’로 칭송받았으며, 생시에 선조가 정려를 내리고 『삼강행실록』에 등재했다. 남사고, 황여일, 정구의 ‘주경안 효 칭송’ 글이 다수 전한다.